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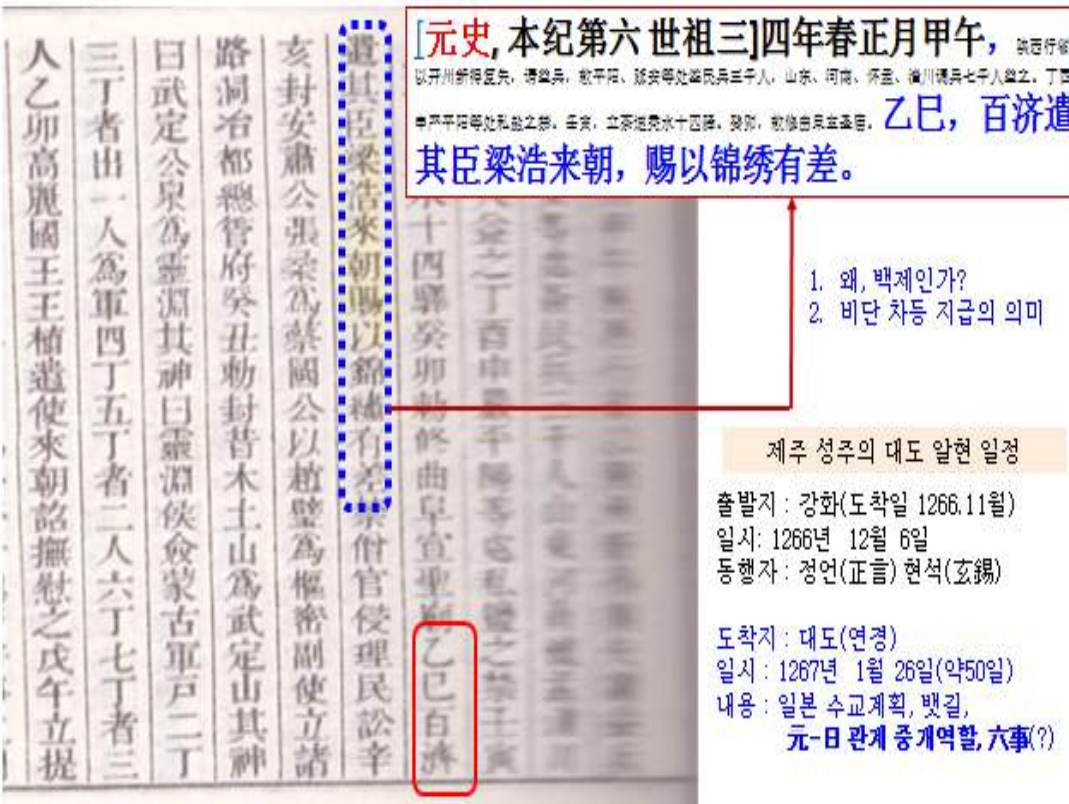
13C末(元代) 및 14C末(明初) 북방 디아스포라 정착과정과 삶의 모습

제주 주둔군-이주민과 중국 운남(雲南) 몽골족의 사례

오 영 주
제주한라대학교
(sustainable@hanmail.net)

- I. 제주와 원(元)의 첫 만남 : 梁浩 vs. 忽必烈
- II. 13C末~14C 末 제주 집단 이주자, 그들은 누구인가?
 - 1. 13C末(蒙元시기) 제주 주둔군
 - 2. 14C말(明初) 중국 운남(雲南)에서 온 이주민
- III.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
- IV. 징기스칸 황금씨족, 梁王家屬에 대한 고찰
- V. 云南省 玉溪市 通海县 몽골족 사례(예비조사)
- VI. 결론

제주 星主 梁浩와 원 세조 忽必烈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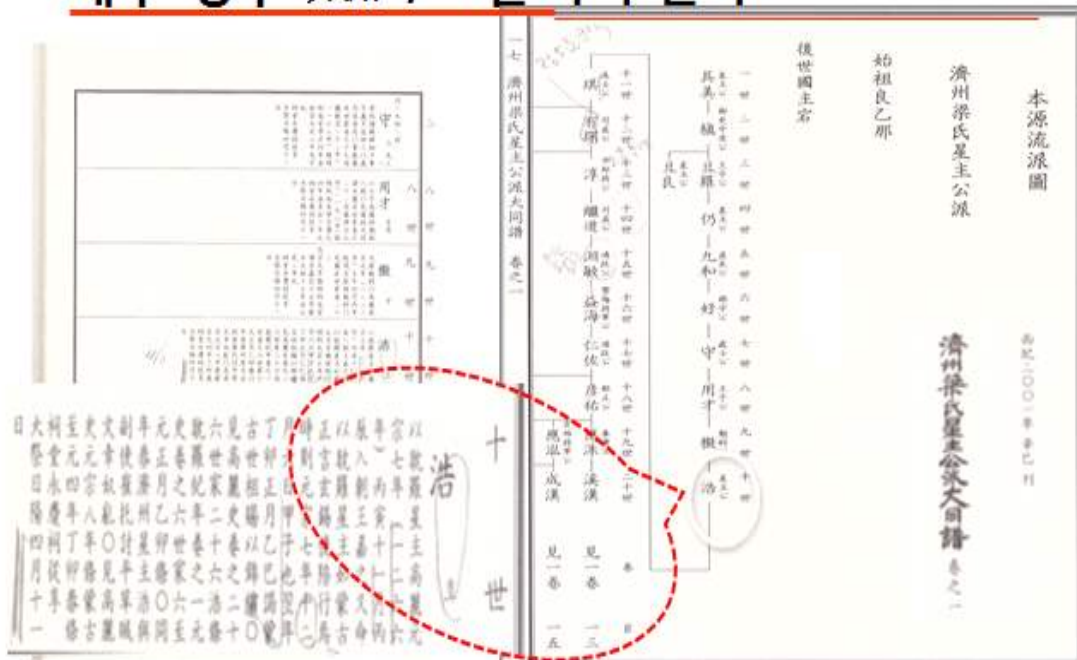




文幸奴의 亂- 양호의 귀국 직후 발생

- 주동자 : 문행노 등
- 발생일 : 1267년(고려 원종 8년) 봄
- 원 인 : 세금징수(쿠빌라이 프로젝트-군비조달?)
-1268년 선박 100여척 건조
-1269년 법화사지 중창
- 장 소 : 長坪(제주성 동쪽 6리, 신촌리 해안)
- 경 과 : 副使 崔托과 星主 梁浩 등에 의해 평정

제주 성주 梁浩, 그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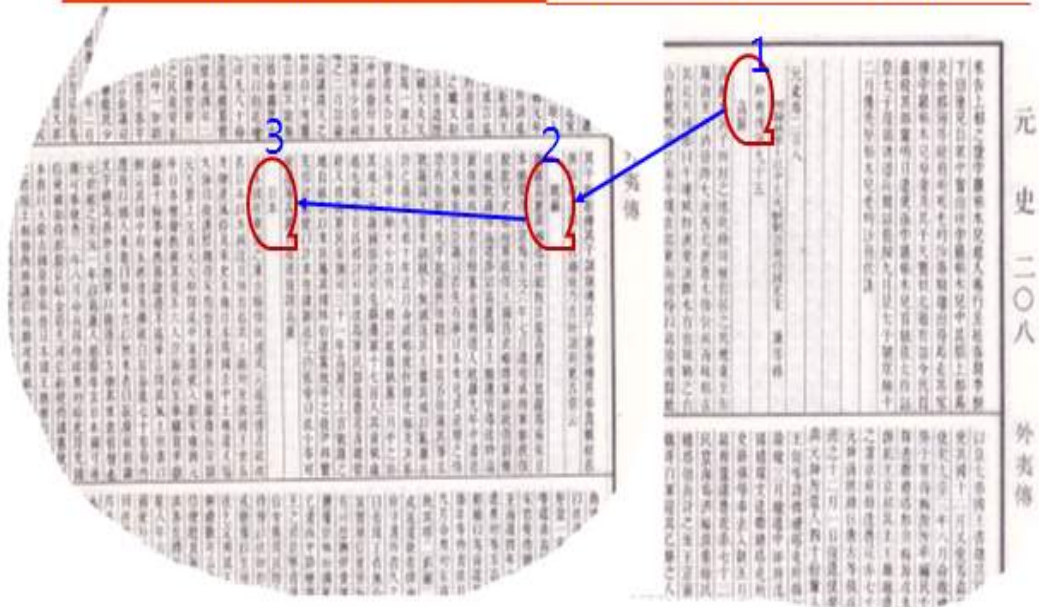
제주성주 양호의 운명

1. 쿠빌라이의 동정정책에 불응했다?
2. 성주직을 버리고 은퇴했다?
3. 삼별초 사멸 이후 양씨 성주를 왕자로 격하시키는 곡필을 당했다?
4. 그 결과, 러말~조선주 600년 등과

성주 양호, 삼별초 이문경에게 당(死)하다?

- 삼별초 별동대장(선발대?) 이문경 제주 파견
- ✓ 기 간: 1270년 8월~11월
- ✓ 이동경로: 추자도-비양도-명월포-동제원-송담천
- ✓ 송담천 전투: 고려 관군 김수·고여림 등 전패 (제주 양호 군대 포함?)
- ✓ 결 과: (문경이 관군을 모두 죽이고 朝天浦에 웅거)
 - 관군 전패, 삼별초 제주 지배권 확보
 - 삼별초 주력군 진도(여몽연합군 진도 정벌)→ 제주 주둔 인프라 구축(1271년, 원종 12년)
 - 삼별초에 의한 제주 양씨의 수난史 시작(?)

원 세조의 탐라에 대한 시각 고려의 속국 제주를 독립국 탐라로, 일본 보다 앞서



耽羅は古く独立国として、百濟・唐・日本に通好し、九世紀初頭から新羅、次いで高麗にも貢獻した。高麗は十二世紀初めに耽羅に郡を置き、同世紀半ばに県に改め、十三世紀に入って濟州を置いた。しかし、一二六六年、星主(耽羅土着の領袖)は高麗を経て元に行き(麗26元宗7・11)、翌年にも耽羅は元に遣使する(元6至元4・1)という経緯があつて、元は耽羅を高麗とは別格の存在と認めた。三別抄の乱の後、耽羅は元の支配下に置かれたが、元末、明初に高麗が耽羅の支配権を回復する過程で、星主らはまったく自治の権を失つていくことになる。元代は耽羅の命運を決定づける重要な時期であつた。小稿は、元の日本遠征の耽羅との関わり、耽羅の帰属をめぐる

はじめに

元・明初の耽羅(濟州島)

大葉昇一

研究ノート

“탐라가 오래된 독립국으로 백제와 당,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9세기 초부터는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후에는 또 고려에 조공을 바쳤다. 13세기 초, 고려는 탐라에 郡을 설치하고, 후에는 또 縣으로 변경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제주’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266년 星主(탐라 토착민의 영수)는 고려를 경유하여 원나라에 도착한다. 그 다음에 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원 조정은 탐라를 고려와 다른 독립적 존재로 보기에 이른다. 삼별초의 난 이후, 탐라는 원 왕조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원말명초에 이르러 고려는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이로써 성주는 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元代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大葉昇一(1999). 「元明初の耽羅(濟州島)」『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3研究ノート, 55-67

제1기-13C末(元代) 蒙元 주둔군(蒙漢軍) 제주도 입도

| 연도 | 入(出)島 자 | 인원 (+증, -감) | 성별 | | 비고 |
|------------------------|---------|-------------------|----|---|--|
| | | | 남 | 여 | |
| 1273년 (원종 14년, 지원 10) | 蒙漢軍 | +700 | ○ | | 漢人(北方人)>몽골>色目人 |
| 1275년 (충렬왕 원년, 지원 12) | 도적, 죄수 | +100 | ○ | | 일반절도자≠도적(정치범) |
| 1277년 (충렬왕 3년, 지원 14) | 죄수 | +73 | ○ | | 5월 33명, 8월 40명 |
| 1282년 (충렬왕 8년, 지원 19) | 蒙漢軍 | +1,400 (원대 최대) | ○ | | 일본 원정 후 탐라 방어, 3차 일본정벌계획 (右丞 關梨帖木兒 군대 입도 몽골+漢人(南人, 北人)+色目人) |
| 1284년 (충렬왕 10년, 지원 21) | 蒙漢軍 | -400 | ○ | | 家長(妻子, 元 거주자) |

※ 1294년 쿠빌라이 칸 사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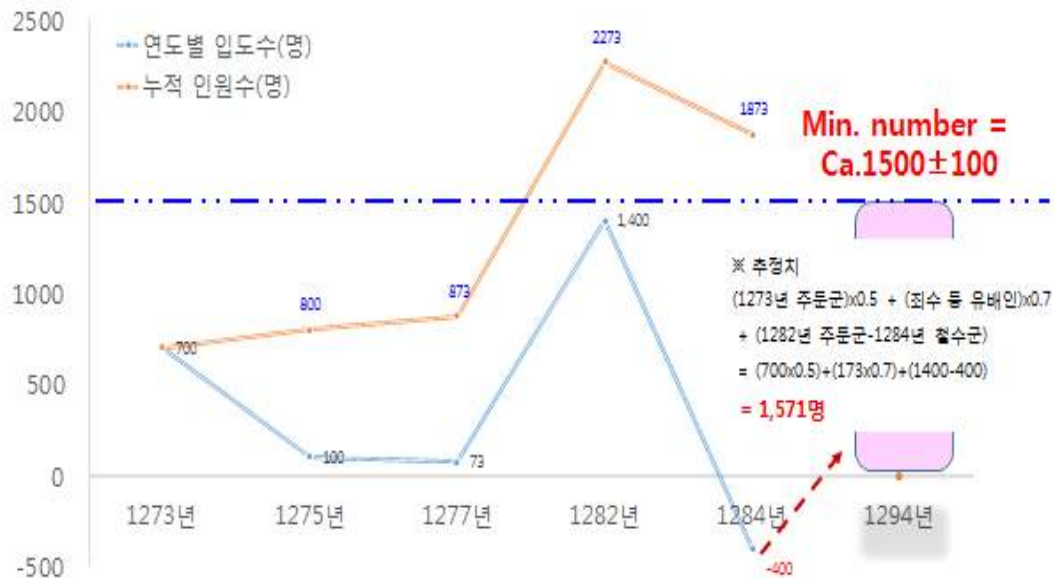
- 1273년~1294년: 元군인(男) 등 최소 1,500명, 법화사지 건축(1269~1279년)
- 1273년~1365년: 소 그들 이주(여성도 포함) → 관원수행원 유배인(초토사, 다루가치, 안무사, 만호, 우승 등 고급관리 (외관 T/O 7명)), 원세조 사망 후 황금씨족 등 고위직 유배
- ☞ 쿠빌라이 집권 시기(1273~1294년)에 집중적으로 이주민 입도 → 제주의 몽골화

쿠빌라이 칸 재임기 연도별 蒙漢軍 제주 입도 추이현황(재)



원 세조 제주 통치기(1273~1294) 蒙元 1차 이주민 수 추정

The 1st Immigration(30년, 1273~1294)



제2기: 쿠빌라이 死 후 원대(~1366년) 제주 유배 및 이주

| 입(출)도 연도 | 입(출)도자 | 인원(명) (+증, -감) | 성별 | | 내 용 |
|------------------|--------------------|-------------------|----|---|--|
| | | | 남 | 여 | |
| 1317년 (원 인종 4년) | 위왕 아목가 (魏王 阿木哥) | +일행 | ○ | ○ | 유배, 조국장공주(충숙왕 妃)의 부친, [元, 流魏王阿朮哥于耽羅, 尋移大 靑島, 고려사절요/元 延祐四年] |
| 1322년 (원 영종 2년) | 徽政院使 라원 (羅源) | ? | ○ | | (高)관원, 응기라트 외가 사 후 정쟁 |
| 1340년 (원 혜종 6년) | 패란해대왕 (李蘭奚大王) | +일행 | ○ | ○ | 유배(살인죄, 再犯, 元史 卷23) |
| 1366년 (원 혜종 32년) | 元世 등 | +11가구 | ○ | ○ | 건축기술자 도목수[梓人(자인)] 가 족일행, 원순제 피난궁전 건축 (己酉十八年, 洪武二年, 1369년) |

-元史卷二十三, 本紀第二十三 武宗二丙午, 十一月 諸王李蘭奚以私怨殺人, 當死, 太宗正也可紮魯忽赤議, 李蘭奚貴為國族, 乞杖之(곤장 치고), 流北部從軍(변경수비군), 從之

-잡은 황제 교체와 권력 투쟁 - 제주를 유배지로 활용

(제4대 황제(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사 후(1320년) 13년 동안 7명의 황제가 교체 권력 다툼)

-원혜종+기황후 집권 시 제주 관심 부활(避難十一月 宮趾?)

입도 100년 후 蒙漢軍의 운명, 甲寅의 變(1374년)

25일간 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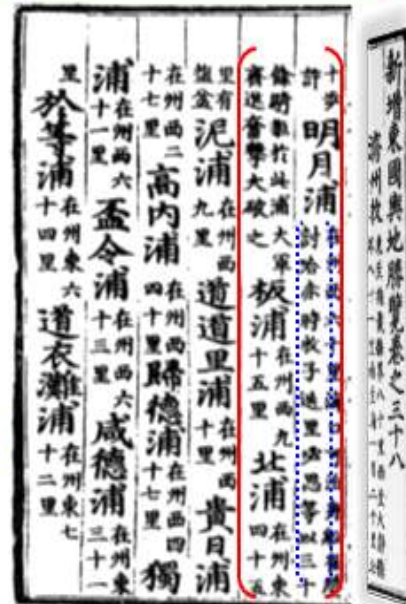
- ✓ 시기 : 1374년 8월 28일~9월 23일
- ✓ 장소 : 서아막(西道), 동아막(東道)
- ✓ 규모 : 2만5,605명(최영)+전함 314척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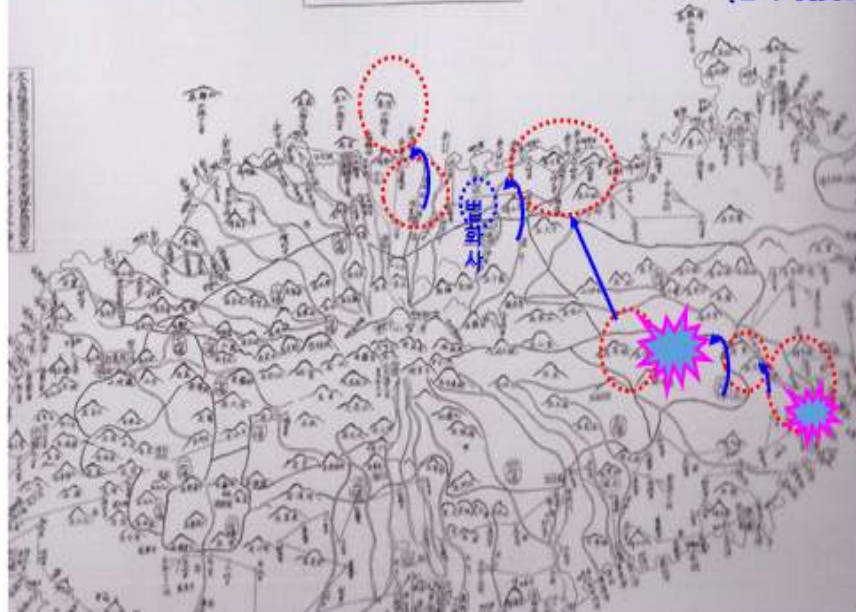
목호기병 3,000명+보병

營部署諸將四面分攻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
音保等以三千餘騎拒於明月浦, 營遣前濟州
牧使朴允清以書諭之曰: “今興兵問罪勢不得已, 除賊魁外星主王
子土官軍民宜悉按堵如故.

[고려사, 권113 > 열전 권제26 > 제신(諸臣) > 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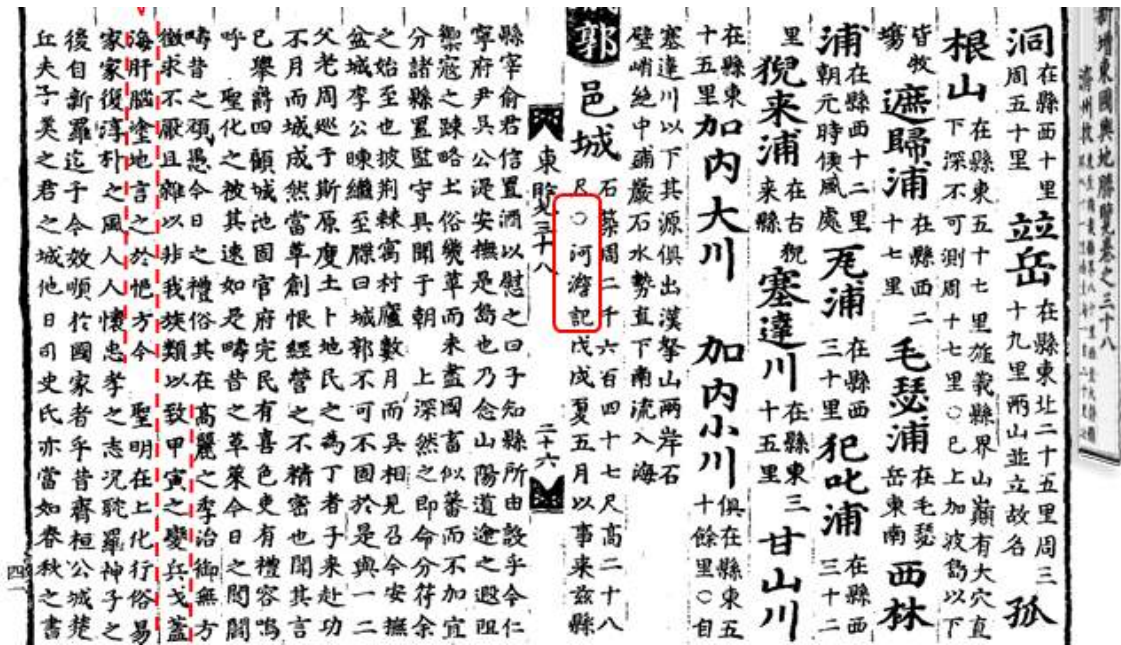


將先到岸船一十一隻軍人行殺死及將牧使李下生殺害緊領馬步兵不計其數自明月村及冰非地面明近吾音地面今勿
吾音地面曉星吾音地面延來地面洪爐地面不分晝夜相拒交戰百般攻討其哈赤牧子人等拒戰不勝逃入虎島以此遣兵圍
[출처: 吏文 2-12. 濟州行兵都諡議使司申]



서아막

동아막



입도 100년 후 죽은 자와 남은 자, 그들은 누구인가?

죽은 자

-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Shi die li bi si
- 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xiaogutu bu hua
- 관음보(觀音保)
guanyin bao

西阿慕
= 西道

- 석다시만(石多時滿)
shi duo shi man
- 조장흥고손(趙莊興古孫)
zhao zhuang hu gu sun
- 석질리보계(石迭里甫介)
shi die li fu jie
- 석가을미(石加乙非)
shi jia yi fei

東阿慕
= 東道

#高麗史113卷-列傳26-崔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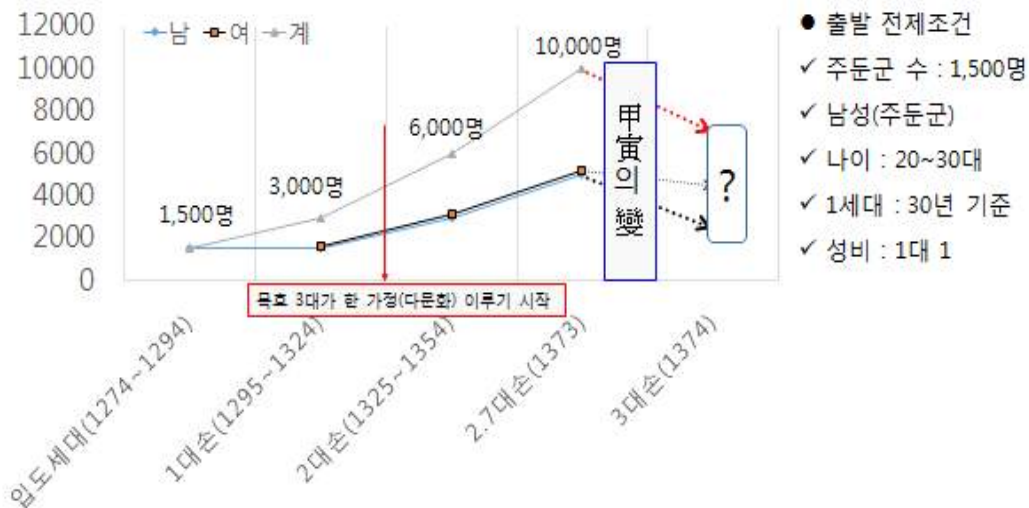
<중략> 高麗之日民有黨哈赤不順命
者縱兵悉誅降者勿逐

且得公私契・卷金銀牌印信馬籍亦皆驗實得者有賞

守佛宇道殿神祠者勿擾

- 명령불복자 → 死
- 항복자 → 生
- 사할 종사자 → 生()

몽한 주둔군 제주 정착 시기 다문화 구성원 **가상적** 변화 추이



제2기: 쿠빌라이 死 후 원대(~1366년) 제주 유배 및 이주민

| 입도 연도 | 입도자 | 인원(명) (+증, -감) | 성별 | | 내 용 |
|------------------|--------------------|-------------------|----|---|--|
| | | | 남 | 여 | |
| 1317년 (원 인종 4년) | 위왕 아목가 (魏王 阿木哥) | +일행 | ○ | ○ | 유배, 조국장공주(충숙왕 妃)의 부친, [元, 流魏王阿朮哥于耽羅, 尋移大 靑島, 고려사절요/元 延祐四年] |
| 1322년 (원 영종 2년) | 徵政院使 라원 (羅源) | ? | ○ | | (高)관원, 웅기라트 외가 사 후 정쟁 |
| 1340년 (원 혜종 6년) | 패란해대왕 (亭蘭奚大王) | +일행 | ○ | ○ | 유배 |
| 1366년 (원 혜종 32년) | 元世 등 | +11가구 | ○ | ○ | 건축기술자 도목수[樵人(자인)] 가 족일행, 원순제 피난궁전 건축 (己酉十八年, 洪武二年, 1369年) |

-잡은 황제 교체와 권력 투쟁 - 제주를 유배지로 활용
(제4대 황제(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사 후(1320년) 13년 동안 7명의 황제가 교체 권력 다툼)
-원혜종+기황후 집권 시 제주 관심 부활(避難宮跡?)

제3기 : 알탄우룩 성원들의 제주 이주

| 기사년도 | 입도자 | 인원 | 성별 | | 입도 경로 | 내용 |
|---------------------------------|--------------------------------------|-----|----|---|--------------|---|
| | | | 남 | 여 | | |
| 명태조 15년(1382)4월 [우왕 8년 7월] |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족 과 위순왕자 바이바이 가족 일행 | 318 | ○ | ○ | 운남-京師- 제주 | -明將 전우덕 양왕가족 남경 송치 -3개월 후 제주 안치 -鈔450錠,馬10匹 제공 |
| 명태조 21년(1388)12월 [창왕 원년 12월] | 북방 타타르(達達)친왕 등 황족일행 | 80호 | ○ | ○ | 북방-京師- 제주 | -북방 정벌 시 귀순자 達達親王 等 八十餘戶 -새집, 헌집 85호 제공 |
| 명태조 25년(1392) [고양왕 4년 3월] | 양왕자손 아안테무르(愛 顔帖木兒) 등 | 4 | ○ | ? | 운남-京師- 제주 | -바이바이태자와 거주 -鈔五十錠 제공 |

- 1-1. 明史紀事本末》卷之十二 太祖平滇/十五年：三月，降武備總使以故元威順王之子伯伯及親王數羅三哥一十八人送京師
1-2. 《明史》太祖本紀三/洪武十五年(1382)：四月五日，將元朝梁王把匝剌瓦兒密及威順王的兒子伯伯的家屬送到京師
1-3. 《고려사》 제134권 - 열전 제47, 우왕 임술 8년(1382년) 7월조
2-1. 《고려사》 제137권 - 열전 제50, 신우 무진 14년(1388) 12월조
3-1. 《고려사》 제46권 - 세가 제46, 공양왕 임신 4년(1392) 3월조
3-2. 《高麗史實錄》卷二 高麗恭讓王二年(1392) 遣使送故元梁王把匝剌瓦兒密及威順王之孫愛顔帖木兒往朝鮮，賜鈔五十錠為遣置費，且命朝鮮送還故元舊臣其親族



雲南 梁王家屬安置濟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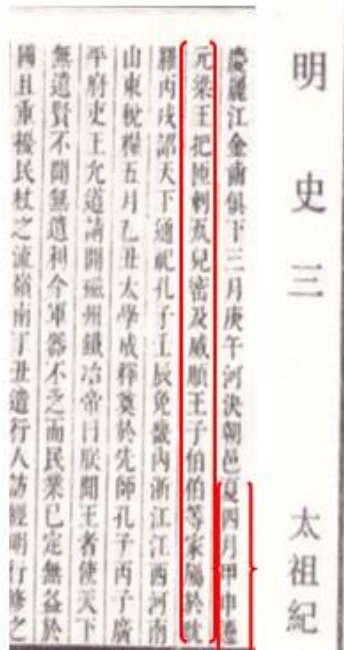
명나라 황제(주원장 朱元璋)가 운남을 평정하고 양왕(梁王) 가족들을 잡아서 우리 나라 제주도(濟州島)로 압송하여 안치(安置)케 하였다.

《고려사》 제134권 - 열전 제47, 우왕 임술 8년(1382년) 7월조



明朝第1代皇帝

在位：1368년1월23日 - 1398년6월24日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속 및 위순왕자 바이바이 가속 등 탐라로 이주 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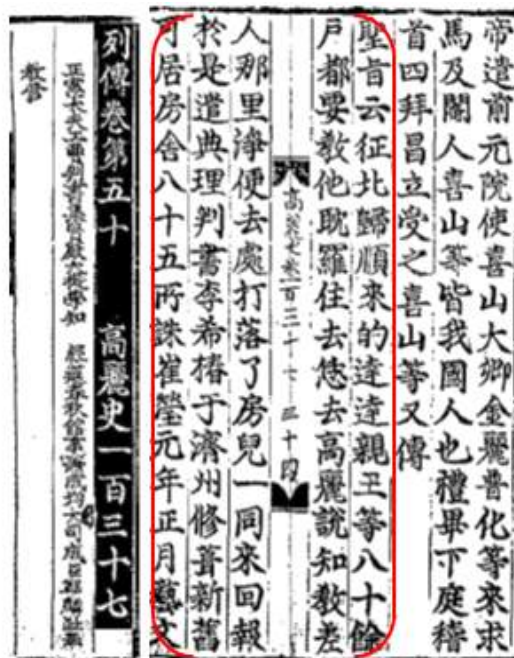
本紀卷三 太祖三

夏四月甲申, 迁元梁王把匝刺瓦儿密及威顺王子伯伯等家属于耽罗。

明史 卷 3, 홍무 15년 여름 4월 조

洪武十五年 (1382년) 1월 6일, 明军在云南昆明附近大败元朝军队, 元梁王自杀, 1382년 4월 7일, 藍王、沐英攻克大理, 段氏投降, 明朝平定雲南。

关于梁王的后裔, 朱元璋将梁王把匝刺瓦尔密的
残留家属共计318人被傅有德派人送至南京,
朱元璋下诏赐钞450錠, 这点钱给得好象不多,
伯伯则赐给10匹马, 一件上等衣服。没过多久,
就把他们跨海迁往耽罗国(今韩国济州岛)安置



북방 정벌 시 歸順來的 達達親王等八十餘戶

황제의 말을 전달하기를

"북방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하여 온 達達親王 등 80여 戶에 대하여 모두 탐라로 가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려 한다. 너희가 고려로 가서 이 사유를 설명하고 탐라로 사람을 보내 정결한 장소에 그들이 거주할 집을 꾸리고 모두 돌아와서 회보하라!"고 하였다. 이에 전리 관서 이희준(李希椿)을 제주로 보내 새 집, 헌 집들을 수리하여 거주할 만한 집 85개 소를 준비하였다.

《고려사》 제137권 - 열전 제50
신우 무진 14년(1388) 12월조



梁王子孫愛顏帖木兒等四人于耽羅

명나라 황제가 전 원나라 양왕(梁王)의 자손

애안첩목아(愛顏帖木兒, 아얀테무르)

등 4명을 제주에 안치하여

박박 태자(拍拍太子) 등과 함께 모여서 살게

하였다.

《고려사》 제46권 - 세가 제46, 공양왕 임신 4년(1392) 三月조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8일 경자 2번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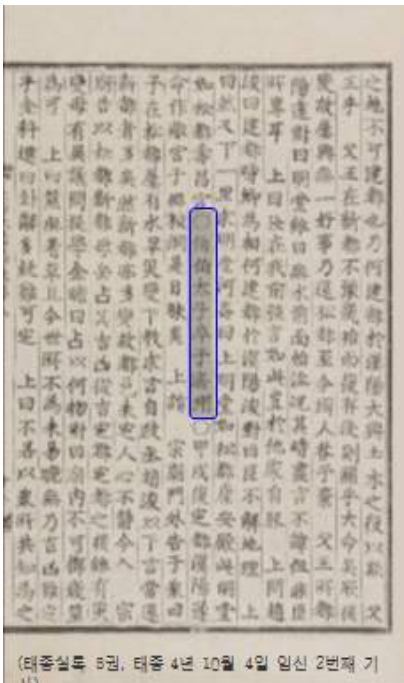
1395년(明 洪武 28年)

백백 태자와 양왕의 손자에게 쌀과 콩 등을 내려 주다

○賜伯伯太子米豆四百斛、紵麻布三十匹、梁王孫子米豆百斛、紵麻布十匹。

백백 태자(伯伯太子)에게 쌀과 콩 4백 곡(斛)과 저포(紵布)·마포(麻布) 30필을 내려 주고, 양왕(梁王)의 손자에게 쌀과 콩 1백 곡과 저포·마포 10필을 내려 주었다.

※ 백백 태자(伯伯太子) : 고려 말에 제주(濟州)로 망명한 원나라 왕족. 원나라의 위순왕의 아들로, 1382년(무술 5) 7월 탐라로 망명하였다. 이후 양왕의 자손들이 명에 의해 제주로 유배되자 그들과 같이 거주하였다.



1404년(明 永樂 2年)

백백 태자의 졸기

○ **백백태자** 卒于 **제주**.

백백 태자(伯伯太子)가
제주(濟州)에서 졸(卒)하였다.
(제주 생활 약 20년 마감)



1444년 (明 正統 9年)

‘백백태자의 처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 구휼하고
사위의 군역을 면제하여 봉양을 맡도록 하다

○ 癸丑/傳旨兵曹:

백백태자 妻年老貧窮, 生理可恤。 其令 **濟州**, 每年給衣糧及
惠養之物, 特加存恤。 且外甥 **林鬱**, 勿差軍役, 專委奉養。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백백 태자(伯伯太子)의 처(妻)가 나이 높고
빈궁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니,
-제주(濟州)로 하여금 해마다 의복과 양식이며
혜양(惠養)할 물건을 주어 특별히 존휼(存恤)을
더하라.
-또 외생(外甥) 임울(林鬱)에게 군역(軍役)을
시키지 말고서 오로지 봉양을 맡도록 하라.”
하였다.

※백백태자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40년을 더 살았음

1435년 이주민(?)의 시련... 말고기를 먹은 자 650명을 평안도로 강제이주 시키다

도승지 안송선이 영의정 황희의 말을 아뢰기를,
“이제 제주에서 평안도로 옮길 우마(牛馬)를 도
살(盜殺)한 자가 6백 50명에 이르고

郡承旨安崇善, 以領議政黃喜言曰: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監
養牛馬者, 幾至六百五十餘,

세종 67권, 17년(1435년 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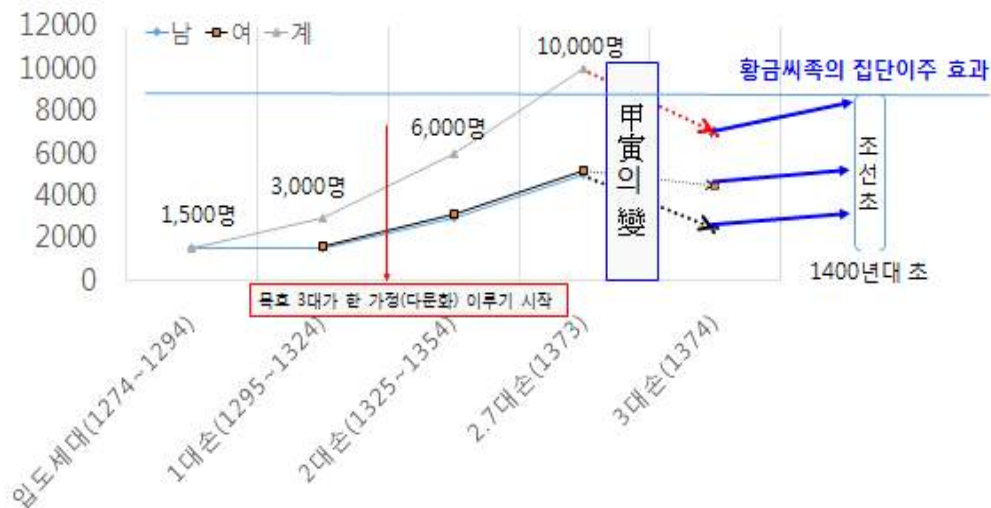
-전략- 내가 듣기에는 말도독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
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
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생졸에 걸렸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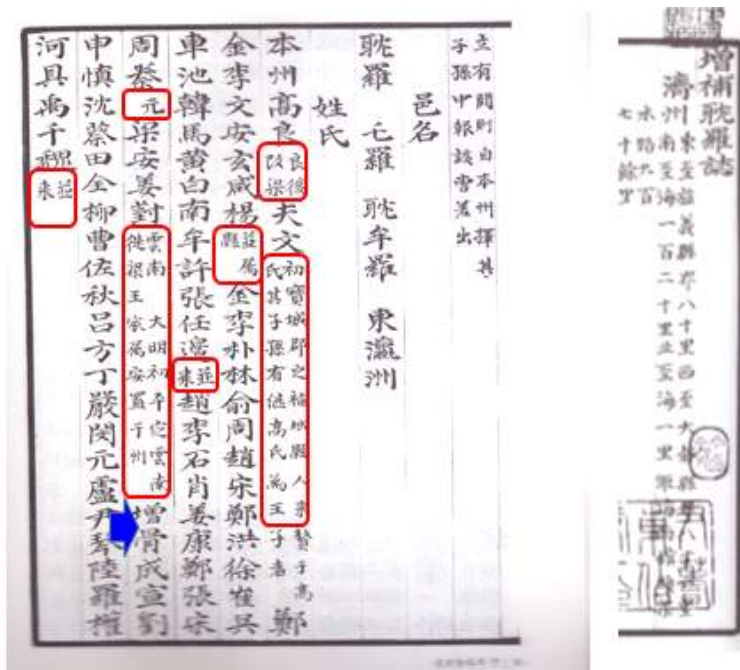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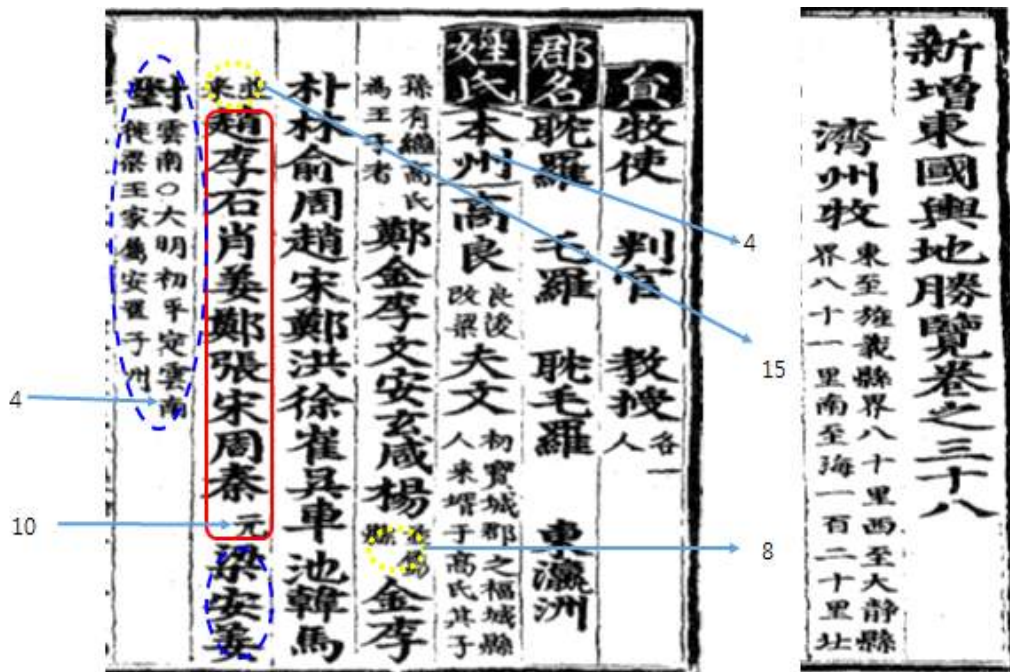
“물레기 숨는 된 가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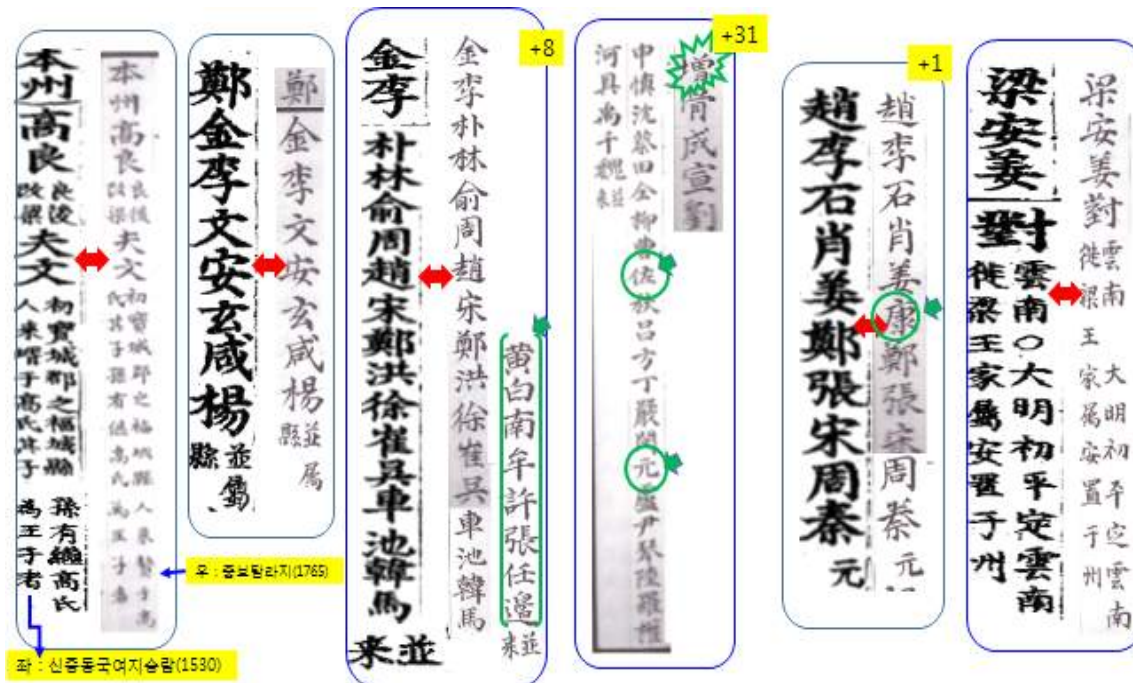
“말고기를 먹으면 과월 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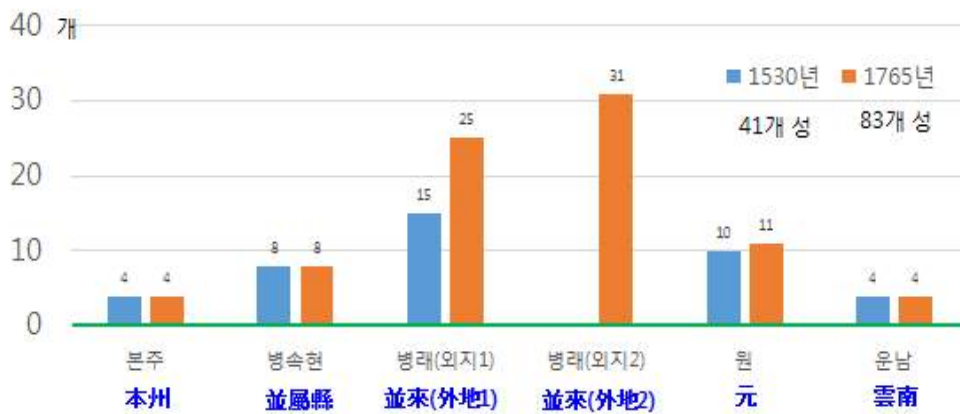
명초 원대인 제주 안치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변화 추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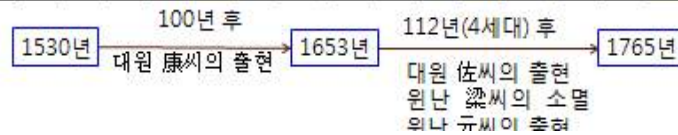
유래 별 성씨 비교(신증동국여지승람 VS. 증보탐라지)



탐라-몽골은 분리할 수 없는 血缘关系

조선시대 연별 大元 및 雲南 도래 제주 성씨 현황

| 연대 | 원(元, 大元) | | | | | | | | | | | | 운남(雲南) | | | | | 출처 |
|------|----------|---|---|---|---|---|---|---|---|---|---|---|--------|---|---|---|---|-----------------|
| | 趙 | 李 | 石 | 肖 | 姜 | 鄭 | 張 | 宋 | 周 | 秦 | 康 | 佐 | 梁 | 安 | 姜 | 對 | 元 | |
| 15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증등국 여지승람 |
| 16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탐라지 (이월진) |
| 17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환박물 (이형상) |
| 17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보탐라지 (윤시등?) |
| 1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읍지 (규장각도서) |



제주 41

국내
최다
성씨
雜居
지역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
晉州牧 東至咸安郡界六十七里至鎮海縣界七十九里西至固川縣界二十八里

姓氏 本州鄭河姜押蘇任康 金朴 道班
城判 一作 周王玄成 金 禮 永善楊韓林
任福山文 知恩 岳陽陶吳任孫朴 金
花開金薩川朴

井邑縣 東至淳昌郡界二十里南至長城縣界三十三里西至古阜郡界八里北至河郡界三十三里

姓氏 本縣渚李晉尹井香谷井

康津縣 東至長興府界二十四里南至海州界七十里西至海州縣界二十五里北至

姓氏 道康金趙黃任表朴玄許耽津崔曹
俞安鄭河 康朴 道班 平德安朴天口徐
大谷曹七陽白永可申金水襄唐吳崔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三
海州牧 東至平山府界六十九里至龍溪縣界五十五里西至咸安郡界四十九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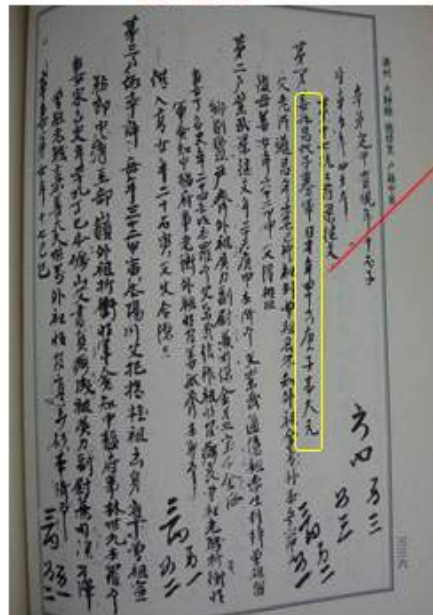
姓氏 本州崔鄭吳閔林文景任郁宋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七
驪州牧 東至忠清道海州界四十四里至江原道界三十三里西至南原府界三十三里

姓氏 本州李閔安畢尹金韓陰川寧堅玄
崔俞房張登神俞

15 10 26 6 29

1825년, 본을 '大元 姜'라고 등재하다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

제17통 1호 거주(1825년)

姜道昌 代子 募軍 日才

강도창의 자, 직역 모군, 성명 강일재
본 大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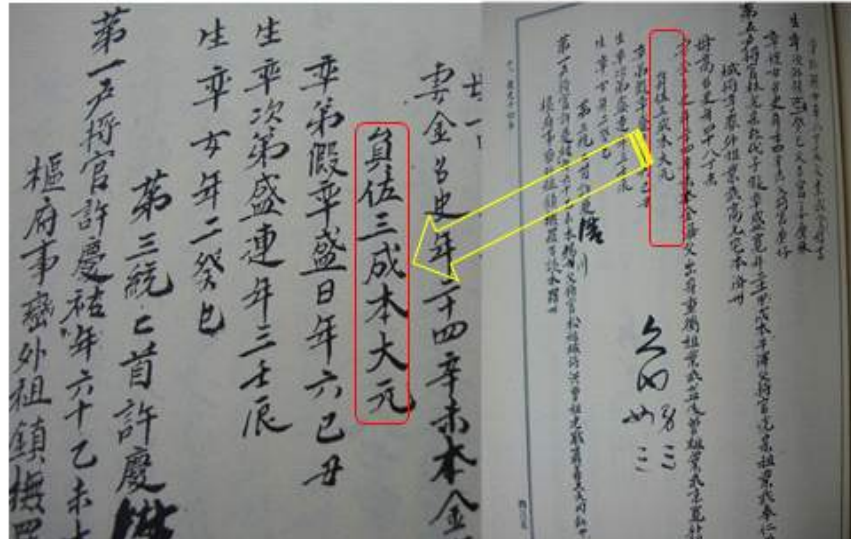
대원 강씨 하치 강백안 (哈赤 姜伯顔)

'칸바이안' "富"
몽골인

1376년 : 제주 만호가 역적
합적 등을 처형하다
제주만호(濟州萬戶) 김종광
(金仲光)이 역적 합적(哈赤)
강백안(姜伯顔) 등 13인을
잡아 죽였고, 그 처자식을
광주(光州)·나주(羅州)에 나
누어 유배시켰다.
<고려사> 133권 열전 46-신우1-02-05-1376

1834년, 본을 '大元 佐'씨라고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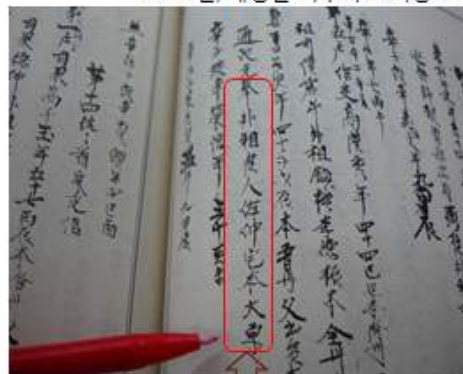
대정현 덕수리 호적증조제2통 5호(18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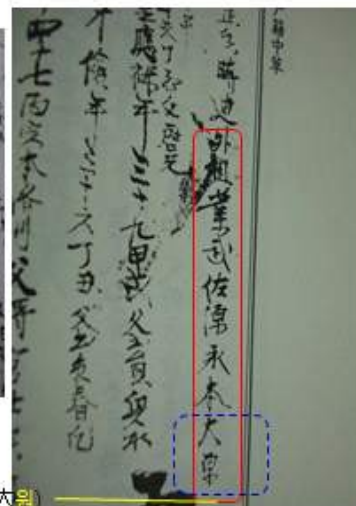
1834년 18년이 지난 후 1852년에는;

왜, 佐(좌)씨의 본을 '大原'/'(元)' 이라고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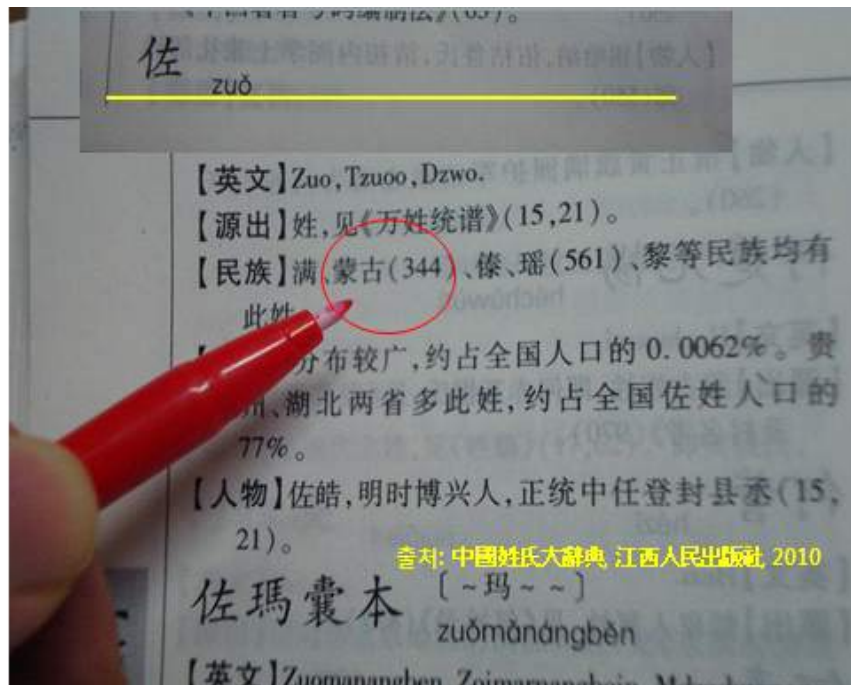
1852년, 대정현 덕수리 호적증조



외조(外祖) 좌중택(佐仲宅), 양인(良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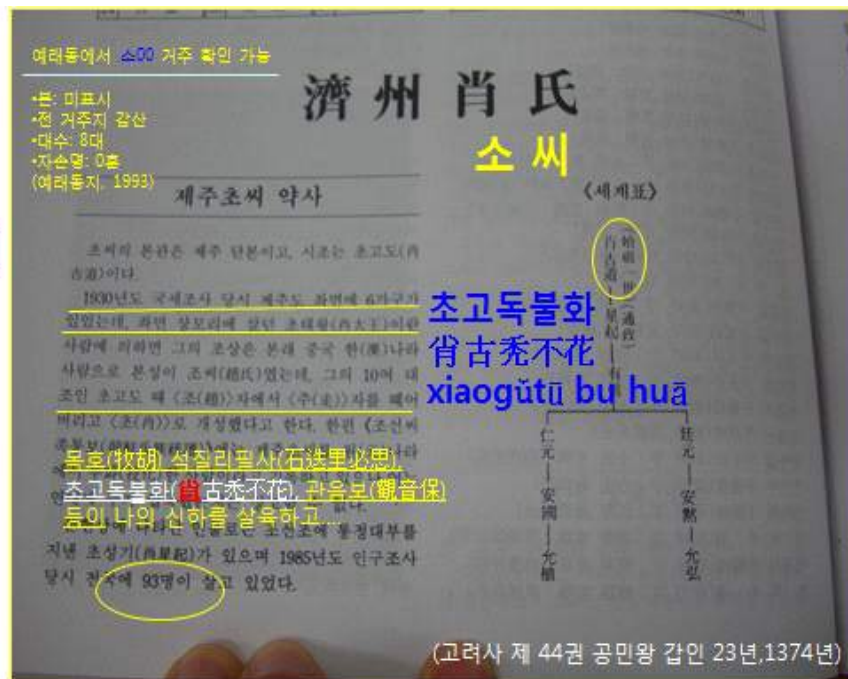


외조(外祖) 좌원영(佐原永), 직인 業武, 본대원(本大元)



肖 [xiào]

古道 [gǔdào]





尙得誠等八人(1462년)

尚得誠等八人(1462年) 今年正月二十四日，
羅州發船，二月初四日，漂到琉球國彌阿槐島

➡ 소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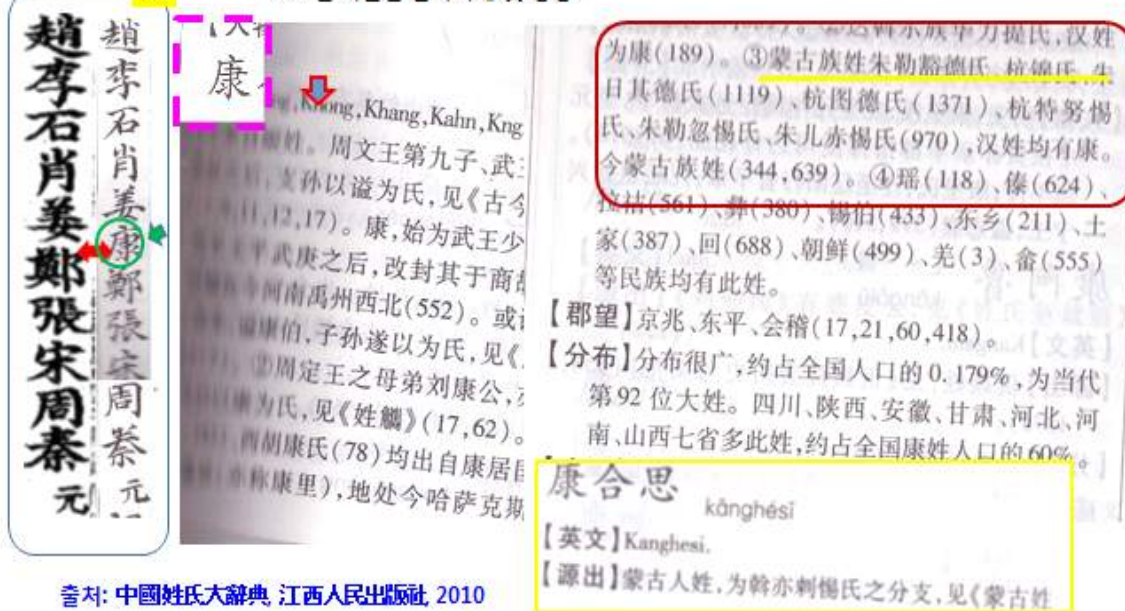
초득성(肖得誠) 등 8인이 **금년(今年)¹⁰⁷** 정월 24일에 나주(羅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초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 미아고도(彌阿鳩島)에 이르렀다. 섬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실어 와서 먹고 인도하여 섬에 머물게 하고서 섬사람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여 공급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명 천순(天順) 6년

1. 강(江)가에 성(城)을 쌓고, 그 가운데 주고방(酒庫房)을 설치하여 방 안에 큰甕(甕)을 배열(排列)하고 술들을 가득 채워 놓고서, 1년치, 2년치, 3년치의 주고(酒庫)에 그 정액(定額)을 나누어 써 붙였다.

+1

1653년 이원진 탐라지에 첫 등장



출처: 中國姓氏大辭典, 江西人民出版社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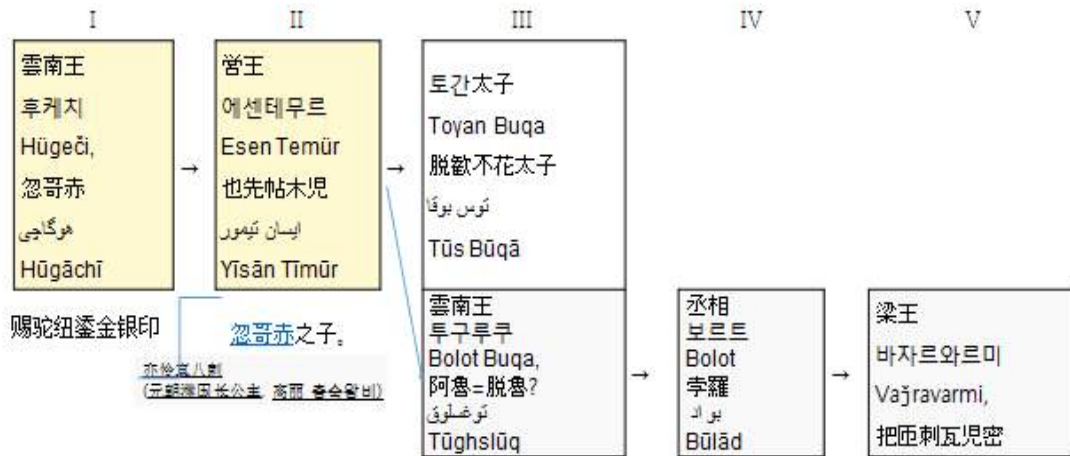
云南王

- 为金印驼纽王。
- **忽哥赤**: 忽必烈第五子, 至元四年(1267年)封, 十七年赐印。
- **也先帖木儿**: 忽哥赤子, 至元十七年(1280年)袭封, 曾为营王。
- **老的**: 火鲁赤后裔, 至大二年(1309年)封。
- **王禅**: 延祐七年(1320年)封, 泰定元年(1324年)进封梁王。
- **阿鲁**: 也先帖木儿第三子。
- **孛罗**: 阿鲁之子。
- **帖木儿不花**: 王禅之子, 泰定元年(1324年)袭封。

梁王

- 为金印兽纽王。
- **甘麻剌**, 元裕宗长子, 至元二十七年十月壬申(1290年11月5日)封, 出镇云南, 二十九年(1292年)改封晋王。
- **松山**, 甘麻剌次子, 至元三十年七月己未(1293年8月8日)封, 以皇曾孙出镇云南。
- **王禅**, 松山之子, 泰定元年十一月丁丑(1324年11月21日)由云南王进封, 天历元年(1328年)帅师与太平王燕帖木儿战于柳林, 兵败见杀。
- **孛罗**, 忽哥赤之孙阿鲁之子, 至正年间由云南王进封。
- **把匝剌瓦尔密**, 孛罗之子, 洪武十四年十二月壬申(1382年1月6日)败走普宁自杀。

忽哥赤(元世祖的第五子)의 계보



梁王 把匝刺瓦尔密(?-1382年1月6日)

1. ^ 《明史》（卷一百二十四）：“梁王把匝刺瓦尔密，元世祖第五子云南王忽哥赤之裔也。封梁王，仍镇云南。顺帝之世，天下多故，云南僻远，王抚治有威惠。至正二十三年（1363年），明玉珍僭号于蜀，遣兵三道来攻，王走营金马山。明年以大理兵迎战，玉珍兵败退。久之，顺帝北去，大都不守，中国无元尺寸地，而王守云南自若；岁遣使自塞外达元帝行在，执臣节如故。”

2. ^ 《明史》（卷一百二十四）：“太祖知王终不可以谕降，乃命傅友德为征南将军，蓝玉、沐英为副，帅师征之。洪武十四年（1381年）十二月下普定。王遣司徒平章达里麻率兵驻曲靖。沐英引军疾趋，乘雾抵白石江。雾解，达里麻望见大惊。友德等率兵进击，达里麻兵溃被擒。先是，王以女妻大理酋段有功，尝倚其兵力，后以疑杀之，遂失大理援。至是达里麻败，失精甲十余万。王知事不可为，走普宁州之忽纳砦，焚其龙衣，驱妻子赴滇池死。遂与左丞达的、右丞驴儿夜入草舍，俱自经。太祖迁其家属于耽罗。”

3. ^ 《明史》（卷一百二十四）：“太祖知王终不可以谕降，乃命傅友德为征南将军，蓝玉、沐英为副，帅师征之。洪武十四年十二月下普定。王遣司徒平章达里麻率兵驻曲靖。沐英引军疾趋，乘雾抵白石江。雾解，达里麻望见大惊。友德等率兵进击，达里麻兵溃被擒。先是，王以女妻大理酋段有功，尝倚其兵力，后以疑杀之，遂失大理援。至是达里麻败，失精甲十余万。王知事不可为，走普宁州之忽纳砦，焚其龙衣，驱妻子赴滇池死。遂与左丞达的、右丞驴儿夜入草舍，俱自经。”



云南省 玉溪市 通海县 몽골족 사례(예비 조사)



몽골인 거주지역 通海縣

- 通海縣 : Tonghai Xian: 당나라 때 通海鎮이 설립된 후에, 원나라 시기 通海縣으로 이름을 바꿈
- 통하이현의 杞麓湖 서쪽의 杞麓山(지금의 鳳凰山) 자락에 위치
- 통하이현에는 2001년 기준으로 대략 5,527여명의 몽골인이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6.83%가 이곳에 거주
- 윈난성 내 74%의 몽골인들이 여기에 거주
- 중국의 남부 雲南에 수 천여명의 몽골족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많지 않음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 서남 변경에 위치한 雲南은 南詔에 이어 大理國으로 약 500년 가까이 존속되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던 지역
- 1253년 몽케가 쿠빌라이에게 정복하게 한 후부터 1381년 명나라 군대가 滇지역으로 들어오기까지 蒙元 제국이 128년간 雲南지역을 통치
- 雲南지역은 몽원제국이 南宋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복한 지역이고, 元나라 順帝가 북행한 이후에도 양왕 바자라와르미의 통치하에 大元의 正朔을 받들고 北元의 년호를 사용 하였으므로 몽원의 통치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함
- 몽골이 대리를 정복한 후 원난행성이 설치되면서 1256년 원 왕조의 군대가 처음으로 통하이현에 들어오고, 지원 20년(1283년), 滇南 宣慰使司都元帥로 파견된 阿喇帖木耳이 이곳에 정착함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몽골인들이 이곳에 정착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몽골족(후방지원부대)이 通海縣에 머물게 된 원인]

- 당시 원나라 군대는 일정한 거주 지역이 없는 상태로 떠돌는 상태
- 통하이현에 주둔하면서 당시 많은 인구의 獮族과 접촉을 하게 됨
- 당시 몽골 군대는 현지 이족 여성과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
 - 이족여성들은 자신들의 언어, 가무 그리고 복식을 몽골인에게 가르쳐 줌
 - 당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들 몽골인들은 이족의 도움으로 토착화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멸족의 위기를 모면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 통하이현의 몽골족에게 한족의 觀音이나 關公은 이들 마음속에 소중한 신으로 존재하는 등 이족에게 받은 영향뿐만 아니라 한족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음
-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 '三聖宮'
 - 통하이현의 白閣村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북쪽으로는 鳳凰山 서쪽 자락 아래에 위치
 - 청나라 同治年間에 만들어진 붉은 기와에 붉은 벽으로 조성된 매우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
 - '三聖宮'에서 모시고 있는 조상은 칭기즈칸, 몽케칸, 쿠빌라이 칸
 - 조각상과 선조들의 토템이 새겨져 있는 창호 문양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유물을 보존
 - '元帥府' 건물 안에는 수십여 점의 비각이 놓여져 있으며, 이 비각에는 초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遷徙史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부임 받아 온 元帥 阿剌帖木耳(아라테무르)와 元帥 施禮(전단)의 사적에 관한 기록도 새겨져 있음

興蒙蒙古鄉의 과거-현재 생활상

- 원나라 말을 타고 종군하면서 전 세계를 누리던 몽골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들은 우선 선박기술과 어업기술을 배워야 했음
- 杞麓湖 주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유목민은 어민이 되고 농민이 되어야만 한 것
- 일부 중국인들은 이곳의 부녀자의 장식과 몇 마디 언어 속에서만 초원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興蒙縣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몽골족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

興蒙蒙古鄉의 현재 생활상

- 수백년 동안 초원을 떠나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원난의 몽골인들은 전통적인 축제를 부활
- '나담축제(那達慕盛會)'를 즐기면서 서로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
- 원래 나담은 물자를 교환하며, 씨족 사회를 연합시키고 전쟁에 대비해 체력을 단련하는 다목적 집단활동이었으나 라마교가 한창이었을 때에는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며, 후에 오락활동으로 발전되어 가축이 살찌고 마유주 등 유제품이 풍부한 여름에 행해짐
- '나담 축제'는 중국 변방 중 변방인 興蒙蒙古鄉에서도 농사의 풍년을 기리는 성대한 행사로 진행

興蒙蒙古鄉의 현재 생활상

- 음력 6월20일 '憶祖節'
- 남녀노소가 모두 전통복장을 하고 '三聖宮'에서 제사를 지냄
- 덕망있는 향촌의 원로가 의식을 주재하면서, 몽골족이 통해현으로 오게 된 역사를 되새기며,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
- '跳樂': 彝族 가무를 통해 변형되었다고는 하나, 고유의 몽골인들의 는 지금도 가호호 모두가 사랑받고, 행사 때마다 모두가 함께 추는 춤사위
- 언어: 명나라 이후로 대량의 한족들이 이곳으로 이주. 따라서 한족의 언어에다가, 현지 이족들의 언어가 혼합되어 독특한 몽골어인 '喀卓語'가 생겨남
- 몽골인과 현지 이족언어 등이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언어
- '喀卓語'는 이곳 興蒙蒙古鄉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공용언어로 현재까지도 사용

결론 및 시사점(1)

1. 제주성주 양호와 원세조 쿠빌라이칸과의 첫 만남 후 제주의 운명
 - (元史) 백제인 양호, 고려와 탐라 분리 기록 → 원조정은 탐라를 다른 독립적 존재로 인식
 - 제주성주 양씨 세력의 약화, 제주 고씨 세력의 강화 → 삼별초의 영향
 - 원말명초 고려의 탐라에 대한 지배권 회복 → 제주 성주(高氏)의 성주직 포기, 성주일가의 중앙 진출
2. 탐라의 몽골화(군사, 목축업 등 행정 및 산업 부분), 몽골인의 제주화(생활문화 등) 진행
 - 원 세조 사망(1294) 이전 20년
 - 蒙漢주둔군, 죄수, 목호, 행정관리 등 1,500명(남성) 내외 이주 및 정착
 - 입도 2세 세대의 증가(蒙漢男-제주女 다문화가정 역사 시작)
 - 원 세조 후손 이후 약 80년 (1294~1367)
 - 고려(원 駙馬國 혼혈왕, 金印 보유), 제주에 대한 통치권 점진적 강화 및 회복
 - 원 황금씨족(원 세조 후손) 제주 유배 시작, 피난궁 '정부'('南元?') 건축기술자 등 가족일행 제주 입도
 - 혼혈3세의 급증(기마군단 3,000명), 제주-몽골문화의 융합 성숙기
3. 甲寅의 變('목호의 난', 1374)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대단위 소실
 - 서아미막(西道) 지경 몽골 다문화가정(村落 단위)의 몰락
 - 삼별초 사건 도민 희생(인구감소)→주둔군 정착(인구 급 증가, 100년)→다문화가정 몰락(인구감소)
 - 다문화가정의 생존자(투항자, 은거자 등) 몽골성씨의 중국 漢族姓氏化 진행
 - 제주도 주도권력의 변화: 몽골성씨 다문화가정 → 제주 토호 성씨(고, 양, 부, 문)로 회복

결론 및 시사점(2)

4. 몽골족의 새로운 수혈 - 明初 징기스칸 알탄우룩 성원(皇族)들의 제주 안치(1382~1392) 10년 작업
 - 朱元璋 운남 정벌 후(1382) 318명(남녀 혼성, 가족단위)
 - 이동경로: 운남→남경→(고려?)→제주
 -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족(후케치 계열), 위순왕(진남왕 계열) 후손 바이바이(伯伯)태자 등
 - 북방 정벌 후(1388) 80호(남녀 혼성, 가족단위)
 - 이동경로: 북방→남경→(고려?)→제주
 - 타타르친왕 등에게 거쳐 마련 (※ 가정: 80호 x 4인 = 320명, 신축/현집 리모델링 후 85호 제공)
 - 잔여 운남 황족의 제주 안치(1392)
 - 양왕 자손 아얀테무르 등 4인, 바이바이(伯伯)태자와 거주

☞ 몽골족 황족(징기스칸)이 집단 거주지로서 제주의 사례(세계사 전례 없음) 의미 부여
5. (중간간 지역) 우마 도살자 650명 집단이주(세종, 1435년)
 - 잔여 목호집단(가족단위)의 정리작업 → 잦은 민란방지, 우마의 순조로운 공납
 - 목호집단 가능성: 우마도살, 우마제사(유목민 풍속), 우마관리
 - 우마 도살자 블랙리스트 약 천여명 작성(제주 관리, 토호세력의 협력?) →목호 출신 다문화가정 감소

(예비조사)결론 및 시사점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 운남의 몽원제국 통치시기 1253~1383년(130년): 주둔군의 경우

가) 몽골족의 문화 전변현상 즉, 유목문화화→반어반농문화→농경문화

나) 변화 요인

- 성(gender): 이족 여성과 결혼에 따른 여성(繡族, '羅羅') 중심의 문화 영향
- 생업환경: 지루호의 수위 변경과 농경지 발생(유목생활 불가)
- 정치적 환경: 지배자 → 피지배자(은둔생활)

○ 제주의 몽원제국 통치시기 1274~1374년(100년): 주둔군의 경우

가) 몽골족의 문화 전변현상 즉, 유목문화→반목(방목)반농문화 →농경문화

나) 변화요인은 향후 운남의 문화 전변현상 사례와 비교할 경우 설명 가능

○ 명초 운남의 제주 이주인(80호 외) 1383~ : 운남 양왕 가솔 및 북방 쿠빌라이 후손의 경우

-한족문화에 익숙한 집단 이주자의 생활

비교연구를 통해 운남과 제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색하면(세부 조사설계 필요), 제주 북방유목문화의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임(제주문화의 다양성, 비교조사 집단의 중요성 강조)

[참 고 문 헌]

- 김일우(2008). 高麗時代 耽羅史研究, 신서원
- 岡田英弘(2010). 元惠宗与济州岛, モンゴル帝国から大清帝国へ, 165-181
- 大叶昇一(1999). 「元明初の耽羅(济州島)」『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3研究ノート, 55-67
- 池内宏(いけうち ひろし)(1926).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學報 16-1
- 高發元, 云南民族村案調査(2001). 1 - 27 ; 22. 蒙古族: 通海興蒙郷/ 方慧, 榮莉 共主編, 雲南大學出版社 (국립중앙도서관)
- Tu, Yu-t'ing(1980). 云南蒙古族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경북대 중앙도서관)
- 内田吟風(2003). 北方民族史與蒙古史譯文集, 云南人民出版社. (국립중앙도서관)
- 馬世雲(2000). 蒙古族文化史, 云南民族出版社.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 Fang, Hui(2001). 蒙古族: 通海興蒙郷, 云南大學出版社. (충남대 도서관)
- 興蒙蒙古族郷志(2004).
- Henry G. Schwarz(1984). Some Notes on the Mongols of Yunnan, Central Asiatic Journal. 28(1/2). 100-118
- 袁淑姬(2012). 元末明初の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東洋史學研究, 119. 197-226
- Herry Serruys(1980)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Insitut Beleg des Hautes Etuedes Chinoise. p 210
- Young-ju Oh(2015). Khubilai Khaan and Tamla's Mongolian in View of Pax-Mongolica. Inst. Of History and Archaeology. Ulanbaatar Mongolia. 144-161
- 기타: 인용문헌은 향후 논문 투고과정에서 밝힐 것임

※(ooo도서관)은 국내에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함